

전북대, 신북방정책 글로벌 교류 강화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 대학 등과 과학기술 협력 전북 전략산업 농생명 분야 협력...지역발전 주력 메가프로젝트 통한 청년일자리 확보 등 기대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발맞춰 동구권 국가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북대는 이 국가들과 전국의 전략산업인 농생명 분야 등에서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에 주력하면서 좋은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주요대학교와 공학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인·물적 교류를 약속했던 전북대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과 협력해 농생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3~28일까지 이준구 농생대 부학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 주최 농업벨류체인 구축 관련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농림부 (쭈에코파트너스, AK Group 등 우크라이나 농업회사와 심도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가 트로피체바(Olga Trofimeva) 우크라이나 농림부 차관은 전북대의 우크라이나와 국제교류협력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과의 교류 등 제변화대를 함께 모색하자고 밝혔다.

이양구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바구니'로 알려진 세계 4위권의 곡물 수출 국가이며 유럽등지로 여러 가지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라며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 접목 및 인력진출이 이뤄진다면 북방 농업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새로운 먹거리와 청년일자리 확보 등 기대되는 것이 많다"며 농생명 분야에 실질적 협력을 주문했다.

또한 전북대는 우크라이나 남부 드비프로 강 하구 최대 농업 지구에 위치한 헤르손 농대와의 MOU를 통해 학생교류 및 대학원생 유치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주요대학교와 공학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인·물적 교류를 약속했던 전북대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과 협력해 농생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앞서 MOU를 체결했던 키로보그라브 농과대학 올렉산더 레브첸코 부총장과의 협의를 통해 밀산업 등 곡물산업분야의 학생 및 교수 교류를 추진키로 했으며, 국립 키예프 환경생명과 학대학교방문하여 학생교류와 단기 인턴십프로그램 등을 논의했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발맞추고 세계 최대 곡물 수

출국인 동구권 국가들과의 교류는 농생명 분야를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우리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발전 뿐 아니라 그간 진출하지 않았던 동구권 국가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보다 넓은 세상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전북대, 29일 학술전자정보 박람회

전자정보 시연 · 홍보체험 부스 · 특강 등 행사 다채 부스 방문 학생에게 스마트폰 포토프린터 등 경품 제공

최근 도서관의 자료들이 전종의 인쇄자료에서 디지털화 된 전자 자료로 변화함에 따라 학술 전자 정보 자료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학술전자정보를 널리 알리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도서관관장 박승재이 제5회 도서관 학술전자정보 박람회를 연다.

29일 전북대 중앙도서관 일원에서 열리는 이날 박람회에서는 도서관에 구독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저널 전자책, 사이버학습 등의 전자정보를 시연한다. 또한 14개의 홍보 부스가 운영돼 학술전자정보에 대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부스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포토프린터와 AI스피커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된다.

또 풍성하고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 부스 운영 외에도 논문 작성법 특강과 행운의 뽑기 이벤트 도서관 전자정보 활용능력시험 등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행사의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재 전북대 도서관장은 "전북대 도서관은 해마다 2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자정보를 구독하는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전자정보 박람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학습과 연구 활동에 이를 편리하게 활용할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2018 전주의 책' 시민들과 함께 읽어요

전주시립도서관, 100일 필사 진행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2018 전주의 책'으로 선정된 10권의 도서를 필사해 오는 9월 열리는 전주독서대전에서 전시하기로 했다.

전주시립 완산도서관은 '2018 전주의 책'을 시민들이 함께 읽고 기록하며 그 순간들을 기억에 남기기 위해 100일 필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약 2개월간 온라인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2018 전주의 책은 △결을 주는 일(문신) △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 △마음이 공방에 가 있습니다(최명기) △바깥은 여름(김애란) △전주 느리게 걷기(최가우) △달려라 택배트릭(임미성) △마지막 퍼즐조각(박서진) △물사 울(전미화) △수상한 김치떡(김

자연) △책 깎는 소년(장은영)으로 총 10권이다.

'2018 전주의 책' 필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오는 8월 18일 100일간 진행되며, 시민들이 완성도서관 료비와 나머지 10개 시립도서관 자료실에 전시된 도서를 필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전주시민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전주독서동아리 연합회 소속 1개독서동아리 당 1권의 필사노트를 완성시키는 이벤트도 전개된다. 이를 위해 전주완산도서관은 참여한 동아리에 필사노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독서동아리는 기간 내 완산도서관 책임은도시팀(063-230-1872)에 신청하면 된다.

/송효철기자

원광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

원광대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지역 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자생적 인문 활동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원광대는 오는 6월 14일부터 '내 마음에 향기를 담다'를 주제로 바름으로 스며드는茶香, '내 안에 있는 네 가지 마음' 등의 강연을 진행하고, 최북단 녹차 밭이 있는 익산시 웅포소림

문화체험관을 방문해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탐방 및 체험 시간도 갖는다.

원광대 중앙도서관장 김정현 교수는 "현대인들이 가장 공감하기 쉽고 우리 실생활의 친숙한 주제인 차문화를 주제로 선정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감 인문학'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원광대 중앙도서관(850 5454, 54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금암동 거북바위 인근 계단골목 벽화로 재탄생

전주시, 자원봉사 대학생 등 참여 벽화그리기 추진

넓고 칙칙했던 전주시 금암동 거북바위 인근 계단과 골목길이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진 화사한 골목길로 탈바꿈했다.

전주시와 KT&G전북본부 임직원, 자원봉사 대학생 금암2동 주민 등 200여명은 지난 19일과 25일, 26일 3일간에 걸쳐 금암2동 거북바위 인근 계단 골목길에 스토리가 물씬 풍기는 벽화를 함께 그렸다.

이번 벽화그리기는 전주시 해피하우스 주민참여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가 벽화를 그릴 재료를 지원하고, 마을주민과 사회봉사에 적극적인 KT&G 전북본부 관계자, 자원봉사 대학생 등의 재능기부와 노력봉사를 통해 추진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노후담장 비탈처리 및 비탈색 도색을 실시하고, 25일에는 벽화 스케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6일에는 마지막 3단계 작업인 벽화 채색하기를 통해 담장 3곳에 벽화를 그리고 100여 계단에도 계단벽화를 그렸다.

임채준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이



전주시 금암동 거북바위 인근 계단과 골목길이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진 화사한 골목길로 탈바꿈했다.

번 벽화그리기로 칙칙한 골목길과 밋밋하고 노후된 계단을 살아 숨 쉬는 이미지로 재탄생시킴으로써 낙후된 마을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마을로 재탄생시켜 지역화와 마을단위 주거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기자

인후3동 착한어린이집 현판식

인후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송문석)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서성진)위원들과 함께 28일 오전 아기별 어린이집(대표 선정일)을 방문해 착한 어린이집 현판식을 가졌다.

선정일 대표는 2003년 2월부터 어린이집을 인가받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역 내 어려운 세대에는 무료로 보육하며,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후원하여 정기기부(CMS)하는 등, 나눔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온 어린

이집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또 선정일 대표는 "매일 어린이들에게 손수 담긴 장과 된장으로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등 어린이 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 작은 애국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문석 인후3동장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우리 동네 착한어린이집의 5호 현판식을 하게 되어 마음속 깊이 따듯함을 느끼고 있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착한어린이집(선정일)대표를 격려했다.

/송효철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